

김제 안전개발국 이영석 국장, 산의 날 대통령상 수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안전개발국 이영석 국장이 지난 18일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열린 '제23회 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영석 국장

산림청이 주관하는 이 표창은 산림문화·휴양·치유·교육·등산 등 산림복지 증진과 입법발전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매년 포상하고 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영석 안전개발국장은 평소 산림과 녹지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김제시 그린시티 정책을 목표로 녹지 정책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지난해 9월 개장한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과,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숲앤아이생태놀이터, 도시숲 및 생활밀착형숲 등 산림복지 및 휴양을 위한 사업을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성실히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 국장은 "앞으로도 김제시 그린시티 정책을 목표로 지속적인 녹지확충과, 산림문화·휴양 등 산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왕정동, 아파트 경로당 대상 구강 건강 교육

남원시 왕정동(동장 양병오)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치아 건강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남원시 보건소와 협력, 왕정동 지역 내 아파트 경로당 4개소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잇몸 질환과 치아 손상 등 구강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청결 유지 방법과 보관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구강 건조증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안내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강 위생용품도 소개,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교육 후에는 구강용품도 제공하여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기회를 마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농협, 쌀 소비촉진 위한 '쌀 나눔 행사' 실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지난 19일 제23회 적삼면민의 날, 적삼체육공원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무주농협 임직원 15명이 참여하여 지역농산 물인 '무주 반딧불 쌀' 홍보 및 쌀 소비촉진 동참을 위해 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쌀(500g포장), 1,000개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 운동 참여를 적극 호소했다.

곽동열 조합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천동농협,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실시

구천동농협은 지난 18일 무풍면민의 날 행사를 맞아 무풍 생활체육공원 내 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은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쌀밥에 대한 관심 제고와 쌀밥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구천동농협 김성근 조합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관심과 아침밥을 챙겨먹는 습관을 다시금 장려하며, 나아가 쌀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내 노사 '노래로 하나 되다'

제1회 전북자치도 노사화합가요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노사 화합의 장 열려

노래로 하나된 노사가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도내 노사

간 상생과 소통을 촉진하는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가요제'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가요제는 노사 간 화합을 노래로 표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첫 가요제는 노사 간의 소통을 노래로 풀어내며, 도내 기업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노래를 통해 노사는 갈등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화합하고, 협력의 문화를 뿌리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권기봉 의장, 전주상공회의소 조병두 부회장, 각 시군 고용노동지청장과 기업 관계자 근로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가요제의 예선전은 지난 12일 치러졌으며, 총 40개 팀 중 치열한 경연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이

무대에 올랐다.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은 숨겨둔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관객과 함께 소통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경계를 넘은 진정한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응원석에서는 노사 구분 없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으며, 이는 축제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본선 무대를 축하하기 위해 부활, 크라이닉, 변진섭, 윤수현 등 인기 가수들이 공연을 펼쳐 가요제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참가자들의 노래와 가수들의 무대가 어우러지며 행사는 축제의 정점을 찍었다.

이번 노사가요제 대상은 김현철(하이트리로 전주공장)씨가 차지했다. 금상은 정훈희(농협은행 금암지점)씨, 은상은 서희옥(벨엘요양병원)씨, 동상은 이채린(전북은행 사회공헌부)씨, 인기상은 이희열(성진여행)씨가 차지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하반기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은 지난 17일 광주 비엔날레 일대에서 관내 학교운영위원장 2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고창 내 학교운영위원장의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급 학교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광주 비엔날레에서 다양한 전시 관람을 시작으로 작품과 연계한 음식문화체험, 골목 비엔날레 투어 등을 진행하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학교운영위원장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고창 교육 현안에 대한 운영위원장 간 소통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학교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중앙중서 아침밥먹기 캠페인

농협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는 지난 17일 김제중앙중학교(학교장 박경희)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오승경 시의원, 박경희 학교장, 조원석 김제시지부장, 김제시농축협운영협의회 회장 최승운 조합장(금란농협)과 김운조합장(용지농협)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의 하나로 지역 학생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켜 건강을 증진시키고 학업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농협쌀로 만든 삼각김밥과 쌀 가공식품 꾸러미(쌀국수, 크리스피롤, 식혜)를 나누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정성주 시장은 "바쁜 학업 속에서도 아침식사로 건강한 식습관을 갖길 바란다"며 "김제시는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원석 지부장은 "이번 캠페인에 협조해주신 학교와 시장님 외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아침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고, 앞으로도 쌀 소비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담 직원 일동, 김제시에 고향사랑 4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8일 (주)도담 소속 직원 40명이 김제의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4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백산면에 소재한 (주)도담은 도드람 협력업체로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주)도담 직원들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기부금을 마련했다.

특히 기탁식에 참여한 김제시 금구면 출신인 장수봉 대표는 평소 김제시에 애郷심을 가지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도담 직원들은 "김제시 지역발전을 응원하며 직원들간 뜻을 모아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기부금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토록 뜻깊은 기부를 해주신 도담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향사랑기부금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2024년 사업으로 '차세대 노인공거노인 돌봄 인형 지원 사업'과 '청년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도통동 등, 안전재난 대응체계 구축 협약 체결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17일, 경찰 도통지구대, 남원소방서(대응예방과), 남원남여의용소방대, 동 자율방범대, 동 발전협의회, 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금강건설과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재난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재난 상황 시 초기 대응체계 구축, 지역 내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명구조 및 대피 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도통지구대와 남원소방서는 산불조심 기간 공동으로 산불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남원남여의용소방대는 주민 대상 재난 대비 교육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선자 도통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비전대-목포과학대,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전주비전대학교는 18일 목포과학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비전대학교 혁신사업단 전현주 부단장, 목포과학대학교 강양훈 교수, 양 대학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는 민간, 산업, 관공서 및 학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전현주 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전주비전대학교의 물리치료



학과와 목포과학대학교 물리치료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협력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은성 기자

남원 운봉읍, 100세 맞이 어르신에 '청려장' 등 전달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는 10월 17일(목)과 18일(금)을 기념해 올 해 100세를 맞이한 지역 어르신에게 무병장수의 상징인 장수 지팡이 '청려장'과 대통령 축하 카드를 1일 1가구 방문시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려장은 노인의 날을 기념해 199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100세 어르신에게 증정, 이번에 지팡이를 전달받은 유 어르신은 "음障님이 직접 장수지팡이를 전달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다면서, 오래살고 보니 이렇게 좋은 일도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운봉읍은 청려장 이외에도 지난 10월 2일에는 도내 유일하게 운봉읍 이영진 어르신이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모범노인'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운봉읍에 경사가 겹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힐링캠프

남원시는 지난 17일과 18일 2차에 걸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82명을 대상으로 통영에서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힐링캠프는 사회복지업무 최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정서적 소진과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 재충전을 통해 친절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동적인 체육활동과 지역문화 관람 등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9월 28일에도 남원시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를 연수에서 추진해 민간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소진 및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힐링캠프를 통해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정서적 치유와 행복한 복지 남원 만들기에 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